

# 남공철(南公轍)의 연행(燕行) 체험과 대청의식(對淸意識)

안순태\*

- I. 서론
- II. 1807년 연행(燕行)과 청(淸) 인사와의 교류
- III. 남공철의 대명의리론과 만한(滿漢) 차별론
- IV. 19세기 초반 연행 세대와 그에 대한 반성
- 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1807년 연행 체험과 청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공철은 1807년 연행 과정에서 조강(曹江), 이임송(李林松), 진희조(陳希祖) 등 청(淸)의 명사들에게 자신의 시문을 보이고 서문을 받아와 1815년 자신이 직접 편찬하여 인행(印行)한 문집 『금릉집(金陵集)』에 수록했다. 이들 중 특히 조강은 이미 조선 문사들 사이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에 남공철은 서슴없이 조강을 찾았던 것이다. 또한 북경에서 남공철은 저유인(猪裕仁)·오사권(吳思權)과 직접 만나 필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남공철이 자신의 문집 서문으로 조강·이임송·진희조의 것만을 수록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명(明) 유민(遺民)의 후예인 한인(漢人)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 만나 교류한 저유인이나 오사권 역시 명 유민의 후예로, 남공철은 이들 명 유민의 후예에게 강한 연민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한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연민의식은 그의 대명의리론과 결부되어 만한(滿漢) 차별론으로 표출되었다.

한때 박지원, 유득공, 박제가 등과 같은 북학파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고동서화 취미에 열성적이었던 남공철이 청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논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만한 차별론을 내세워 애써 만청(滿淸)을 부정하려 했다는 사실은 의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대명의리론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가문적, 정치적 배경에 놓여 있었다. 부친 남유용이 남명(南明)의 역사를 정통으로 하여 명사(明史)를 다시 써 『명서정강(明書正剛)』을 편찬하고 대명의리론을 강고하게 내세웠던 점을 생각하면 남공철의 ‘만한 차별론’이 난데없는 것도 아니었다. 또 남공철이 친밀하게 교류한 이덕무(李德懋) 또한 명 유민에 대한 관심이 컸던 점, 당시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은 북학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대명의리론을 적극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다는 점 등도 남공철의 대청의식(對淸意識)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남공철은 한송절충론자(漢宋折衷論者)였다. 그러나 한학의 장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송학을 상대화하는 것, 즉 더 이상 주자학설의 절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다름 아닌 주자의 명분론에 기반한 대명의리론의 약화 소지를 애초부터 안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즉 대명의리론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한송절충론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자기 모순을 안고 있던 남공철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대명의리론은 만한의 차별을 통한 명 유민에의 예우 내지 그들에 대한 연민의식으로 나타났다.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북학론자들도 대개는 대명의리를 부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학과 대명의리 또한 모순되는 것이기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대명의리를 거론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거론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한송절충론과 북학 논의가 활발해지던 18, 19세기 상당수 조선 지식인들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남공철이 연행한 후 15년이 지난 1822년, 추사(秋史)의 족숙(族叔) 김노겸(金魯謙)은 연행하는 족질(族姪) 김명희(金命喜)에게 연행과 관련하여 재고해야 할 점들을 정리하여 서문을 써준다. 이는 당시 연행 풍조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19세기 초반에 취할 수 있는 대명의리론의 향방을 날카롭

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공철의 연행 체험 및 그의 대명의리론에 건주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서문에서 김노겸은 연행 기록을 지나치게 세세히 하는 것의 부당함, 한인(漢人)이라면 가리지 않고 사귀어 그들로부터 받은 시문을 과대평가하는 것에 대한 경계, 중국 서적이라면 가리지 않고 들여오는 것의 무모함, 현실을 감안한 대명의리 인식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명의리론과 관련하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던 당시 상황에서 무작정 의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나라가 무사한 것이 우선이라며 엄중한 국제 정세를 감안한 현실적인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후기 대명의리론의 추이로 볼 때 남공철의 대명의리론은 19세기 초반 대명의리론의 종장(終場)에서 견지할 수 있었던 지식인의 심화된 자기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학(漢學)의 장점을 인정하여 주자학을 상대화하면서도 명 유민의 후예에 대한 연민의식의 표출을 통해 주자의 명분론에 기반한 대명의리론의 일단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가문적 배경과 정치적 위상 때문에 남공철은 직접 연행 체험을 하면서도 청의 선진 문물을 애써 외면하며 그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남공철(南公轍), 조강(曹江),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 한송절충론(漢宋折衷論), 김노겸(金魯謙), 연행(燕行), 만한차별론(滿漢差別論).

## 1. 서론

본고는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연행(燕行) 과정에서의 체험과 청조(淸朝) 인사들과의 교류, 그리고 그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세기 이래 북경 유리창으로부터 들어온 온갖 사치품의 주 소비자는 경화세족이었다. 남공철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경화세족이자 고동서화 취미를 적극적으로 향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sup>1)</sup> 또 그는 젊은 시절 박지원이나 이덕무, 유득공 등 이른바 북학과 일원들과 활발히

교유하기도 하였고,<sup>2)</sup> 그 자신 1807년 정사(正使)로서 북경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로 보면 그 또한 청의 문물과 학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북학과와 같은 입장에 서 있을 것 같지만 청에 대한 그의 입장이나 인식은 북학과와 그것과 자못 결을 달리한다.

남공철은 순조7년(1807)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은겸동지사(謝恩兼冬至使)로 연경(燕京)에 다녀온다. 이 사행에 남공철은 정사의 임무를 띠고 갔으며, 부사 임한호(林漢浩, 1752~1827)와 서장관 김노응(金魯應, 1757~1824) 등이 동행하였다. 남공철의 연행 체험이나 청(淸)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여럿 있다. 조강(曹江), 이임송(李林松), 진희조(陳希祖) 등의 『금릉집(金陵集)』 서문과 그 뒤에 남공철 자신이 부친 「자지(自識)」, 청 인사들과 나눈 필담에 부친 서문 「연경필담서(燕京筆談序)」(『영옹재속고(穎翁再續藁)』 권2), 연행 당시 북경에서 유구(琉球) 사신들과 만났던 경험을 기록한 「기유구인어(記琉球人語)」(『금릉집』 권14), 명칭 교체기에 조선으로 망명한 석계조(石繼祖)의 묘지명 「석거사묘지명(石居士墓誌銘)」(『금릉집』 권17), 사행단 일원으로 연경에 가는 이들을 전송하며 지은 여러 편의 송서(送序) 등에서 그의 연행 체험과 중국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남공철의 연행 체험과 그의 청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II. 1807년 연행(燕行)과 청(淸) 인사와의 교류

### 1. 옹방강(翁方綱) 문인과의 교류

18세기 후반 이후 연행사 일행 가운데는 청조 인사들에게 시문을 보여주거나 서문(序文)을 받아오는 이들이 많았다. 그렇게 받아들인 서문을 자신의 문집 서문으로 수록하기도 하였다. 가령 박제가(朴齊家)는 1776년, 종사관(從

1) 김성진, 「조선후기 문인들의 생활상과 소품체 산문」,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김도련 편, 태학사, 1998; 강명관,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고동서화 취미」,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등 참조.

2) 안순태, 『남공철 산문 연구』, 월인, 2015, 40~44면.

事官)으로 연행하는 유금(柳琴)에게 부탁하여 반정균(潘庭筠)과 이조원(李調元)으로부터 서문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1801년 박제가 자신이 북경에 가서 진전(陳鱣)으로부터 서문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조수삼(趙秀三)도 1789년 박성원(朴性源)을 따라 중국에 갔을 때 주문한(朱文翰)과 강련(江漣)에게 자신의 시문을 보여주고 서문을 받아왔는데 이 서문들이 『추재집(秋齋集)』에 수록되어 있다. 서형수(徐滢修, 1749~1824) 또한 1799년 진하겸사은부사(進賀兼謝恩副使)로 연행하였을 때 기균(紀勻)과 진승본(陳崇本), 서대용(徐大榕) 등으로부터 서문을 받아와 문집 『명고전집(明臯全集)』에 수록하고 있다.<sup>3)</sup>

남공철은 1807년 연행 당시 자신의 시문을 들고 가 조강(曹江, 1781~?), 이임송(李林松, 1770~1827), 진희조(陳希祖, 1767~1820) 등 청초 인사들에게 보이고 그들로부터 서문을 받아와 1815년 스스로 편찬한 문집 『금릉집』에 수록하였다. 남공철이 그들을 직접 만나 자신의 시문을 보여주고 서문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는 남석로(南石老)라는 이를 통해 조강에게 시문을 보이고 조강이 다시 이임송과 진희조에게 부탁해 그들로부터도 서문을 받아온 것이다. 그 경과는 다음 이임송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수(玉水, 曹江의 字)는 학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으며 객(客)을 좋아하여 부친의 풍도가 있어 해외 사람들과도 한두 사람 친숙한 이들이 있었으니 가령 조선의 유득공(柳得恭)이나 박제가(朴齊家)는 모두 지난번 옥수에게 들러 만난 적이 있다. (옥수가) 손에 한 부의 책을 들고와 내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는 조선의 사신 남금릉(南金陵) 선생의 시문입니다. 서문 한 마디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였다.<sup>4)</sup>(괄호는 인용자)

조강의 부친 조석보(曹錫寶, 1719~1792)는, 건륭제의 충애를 등에 업고

3) 이 가운데 『명고전집』만이 자찬적 성격이 강하고 나머지는 저자 사후 편찬된 것들이다. 그렇다고 해도 문집 서문에 청 인사들의 서문을 거리낌 없이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 자신들이 생전 그 서문을 중시하였거나, 중국 인사의 서문을 문집 서문으로 수록하는 것이 당시의 풍조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玉水既渴於學，好客有父風，海外人猶有一二習者，如朝鮮柳君得恭、朴君齊家，皆是昨過玉水許，則手一編示余曰：‘此朝鮮使南金陵先生詩及文也，盍爲弁一言。’”(李林松，『金陵先生文藁序』，『金陵集』)

사사로이 치부(致富)한 간신 화신(和珅, 1711~1799)을 탄핵하다가 고초를 겪은 인물이다. 조석보는 정치적으로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도 객들을 좋아해 사람들을 잘 대접하여 날로 이름이 났으며 외국 사신들도 그를 만나는 것을 영예롭게 여겼다고 한다. 건륭제가 죽고 나서 그는 부도어사(副都御使)에 증직되고 그 아들 조강은 음직으로 벼슬을 하게 되었다.<sup>5)</sup> 이임송은, 조강 또한 객을 좋아하여 이미 조선의 유득공이나 박제가를 만난 사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유득공이나 박제가가 이미 청의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공철은 조강과 이임송, 진희조 등 그에게 서문을 써준 이들이 당시 중국에서 문장으로 이름이 난 자들이라 하였다.<sup>6)</sup> 1807년 단 한 차례만 연행한 남공철이 어떻게 그러한 사정을 알고 그들에게 서문을 부탁하였을까? 위 이임송의 언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조강은 이미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다. 1801년 연행한 유득공은 당시의 체험을 기록한 『연대재유록(燕臺再遊錄)』에 조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조강은 외모가 아름다웠으며 침착하고 조용하였는데 유리창 부근에 살고 있어 유득공이 유리창에 갈 때마다 자주 그를 방문하였다고 한다.<sup>7)</sup> 1826년 부친 홍희준(洪羲俊, 1761~1841)을 배행하여 연행한 홍석모(洪錫謨, 1781~1850) 역시 조강과 교류하였으며,<sup>8)</sup> 이 밖에도 신위(申緯)나 김정희(金正喜), 조면호(趙冕鎬), 박사호(朴思浩) 등도 조강과 교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5) “玉水父錫寶字劍亭，乾隆末，以監察御史，劾奏太學士和珅。”(柳得恭, 『燕臺再遊錄』); “余友曹君玉水，年少好學人也。其先德劍亭侍御，伉爽好客，家無朝夕儲，日輒作數人饌，既而抗疏忤要人，幾褫職而名日益彰。外國朝貢使，往往介舌人，以一識面爲榮，久之卒。今皇帝親政，獎遺直徙薪曲突，恩澤有加，追贈中丞銜，而蔭其子江以官如例，卽玉水也。”(李林松, 『金陵先生文集序』, 『金陵集』)

6) “曹、李、陳三人，皆海內文章名士，超出輩流者也。”(南公轍, 『自識』, 『金陵集』)

7) “曹江字玉水，江蘇青浦人，書肆中識之，年二十一，美姿容。問其所寓，正陽門外蔣家衛衙雲間會館也。出游琉璃廠時，多歷訪，見其獨處習隸書，日益親。…(中略)…性沈靜可喜。”(柳得恭, 『燕臺再遊錄』)

8) 홍석모가 1826년 당시 연행 체험을 기록한 기행시집 『유연고(游燕藁)』에는 「봉증조옥수중서강(奉贈曹玉水中書江)」 등 조강과 어울리며 지은 시 여러 편이 전한다.

9) 신위(申緯)는 조강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와 묵연(墨緣)이 있다고 하였다. “菘林名家，有陳石士、曹玉水兩人，僕雖未及謀面，曾與有一段墨緣，試往問之。”(申緯, 『經山閣學，充賀至使入燕索詩，故賦此爲別』, 『警修堂全集』 冊18)

그런데 남공철이 문집 서문을 받은 조강과 이임송, 진희조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들에게는 서로 교류하던 사이였다는 점 이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 모두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남공철이 연행하고 나서 2년 후인 1809년, 추사(秋史)가 동지부사인 부친 김노경(金魯敬)의 자제군관으로 연행할 때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이가 조강이었다. 추사는 이윽고 이임송의 안내로 옹방강을 만나러 갔다고 했다.<sup>10)</sup> 이로 보아 최소한 조강과 이임송은 옹방강의 문하에 출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진희조 또한 당시 서법가로 이름이 난 인물이었기에 역시 옹방강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강과 이임송은, 구양수가 한유를 잘 배웠듯이 남공철이 구양수를 잘 배웠다는 내용을 위주로 서문을 써주었다. 한편 진희조는 『金陵集引』에서 “묘정(廟庭)에서 연주하는 거문고와 같으니 일창삼탄하게 된다”[夫淸廟之瑟, 一倡三歎]라고 하며 남공철의 문장을 고평하고 있다.<sup>11)</sup> 남공철은 이러한 내용의 서문들을 자신이 직접 편찬한 문집에 신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남공철은 그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이 깊어 잊을 수 없다고 슬회하고 있다.<sup>12)</sup>

## 2. 명(明) 유민(遺民) 저유인(褚裕仁)과의 교류

남공철은 자신에게 서문을 써준 조강·이임송·진희조와는 직접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남공철이 직접 만나 필담을 나눈 이들이 있었다. 저유인(褚裕仁)과 오사권(吳思權)이 그들이다. 남공철은 귀국 후 한참이 지나 그들과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슬회하고 있다.

10) 정후수, 『秋史 金正喜의 北京 內 交遊 場所』, 『東洋古典研究』 제23집, 동양고전학회, 2005, 205면 참조.

11) “是編於詰經見淹雅, 于叙事見義法, 淳古之甚, 溢爲奇肆, 而自不失於規矩, 盖彬彬乎爾雅之堂矣. 夫淸廟之瑟, 一倡三歎.”(陳希祖, 『金陵集引』, 『金陵集』)

12) “良師又言玉水曹、江雲間、李林松, 以文章意氣相高, 而不欲通名刺於外國貴人, 不得偕至. 余因良師, 送示詩文, 求爲弁卷之言, 皆樂爲之序. 既別, 意嘗往來, 不能忘也.”(南公轍, 『燕京筆談序』, 『穎翁再續藁』 卷2)

하루는 양사(良師)가 유리창에 가서는 두 객을 데리고 왔다. 한 사람은 설산(雪山) 저유인(褚裕仁)이었으니 곧 당(唐) 수량(遂良)의 후예였고 다른 한 사람은 평암(平菴) 오사권(吳思權)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응시하고자 연경에 머물던 자들로 서로 필담을 나누었다. 평암이 부채를 가져다가 송국화(松菊畫)를 그렸고 설산은 칠언절구 한 수를 지었다. 시와 그림이 놀라울 정도로 빼어나 예운림(倪雲林)과 심석전(沈石田)의 필의가 있었다.<sup>13)</sup>

남공철은 정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북경에서 마음대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동행했던 남석로(南石老, 字 良師)에게 부탁하여 천하의 뛰어난 인물을 찾아보라 부탁,<sup>14)</sup> 남석로가 데려온 이들이 저유인과 오사권이였다. 저유인은 당(唐)의 유명한 서예가 저수량(褚遂良, 596~658)의 후예이기도 했다. 오사권이 부채를 가져다가 송국화(松菊畫)를 그리고 저유인이 거기에 다시 시를 써준 일이 있었는데 귀국 후 한참 뒤인 1825년 봄, 용산에 배를 띄우고 노닐 때 한자리에 있던 남석로가 그들로부터 받은 부채를 펼쳐 보인 일을 계기로 연행 당시를 회고하며 쓴 글이 바로 「연경필담서」다.<sup>15)</sup> 이 글에서 남공철은 저유인 및 오사권과의 교류 과정을 회고하며 명 유민에 대한 연민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며 만인(滿人)이 중국을 검거한 이래 중국의 조정에서 예악과 문장을 다시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sup>16)</sup>

### III. 남공철의 대명의리론과 만한(滿漢) 차별론

#### 1. 만한(滿漢)에 대한 차별 의식

16세기에 주자학이 활발히 수용되면서 주자의 존화양이적 명분론에 기

13) “一日良師往琉璃廠，挾二客至。一雪山褚裕仁，卽唐遂良之後，一是平菴吳思權，二人者皆爲應舉留京者也。相與爲筆談，平菴取扇作松菊畫，雪山題七絕一首，詩與畫警絕拔俗，有倪雲林沈石田筆意。”(위의 글)

14) “上之七年，余以正使赴燕京時，濟南良師俱從。時余以奉命，不得恣遊覽，遣良師出而求天下賢豪士。”(위의 글)

15) “乙酉春，余與良師浮舟遊龍山，適良師揮扇，竊視之，乃其時詩畫宛然。”(위의 글)

16) “其後明亡，夷狄據中國，自龍灣至山海關數千里，雖其江山風物，宛然如昨，而天下之左衽久矣。中朝之禮樂文章，今不可復見矣，則忠臣義士之過而覽者，未嘗不彷徨躊躇慷慨泣下。”(위의 글)

반한 존명사대(尊明事大)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명이 조선에 원병(援兵)을 보낸 일로 조선 지식인들은 명(明)에 대해 재조지는(再造之恩)이라는 부채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명의리론이 강화되고, 17세기 전반 명이 멸망하면서 조선은 명의 유일한 계승자로서의 강한 문화자존의식을 갖고 북벌론 또한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들어 북벌의 허구성을 지적하거나 청의 중원 지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는 등 전통적인 대명의리론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 18세기 홍대용이 대명의리론을 근본적으로 회의하면서 대명의리론은 큰 전기(轉機)를 맞게 된다. 19세기에는 북학이 대세를 이루며 대명의리론이 더 이상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대명의리론을 적극적으로 폐기하자는 주장으로 표출되기보다는 남공철과 같이 만한 차별론으로써 대명의리를 소극적으로 환기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대명의리론을 강고히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명의리론의 추이는 대체로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많은 연행록들,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의 연행록들에서는 대체로 청조(淸朝)에 대해 부정부패가 적고 국가 재정이 풍부하며 상공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sup>17)</sup> 연암을 예로 보더라도 청의 경제 발전 실태를 고찰하고 그것을 통해 조선의 후진성을 극복할 실천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가 하면, 풍속의 상대성을 인정하며, 주자학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양명학이나 서학 등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sup>18)</sup> 그에 비해 남공철에게서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남공철은 연행 경험을 통해 세계 인식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학문적 개방성의 측면에서도 한송절충론(漢宋折衷論)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양명학이나 서학에까지 관심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인으로부터 서문을 받아와 자신의 문집 앞에 수록하는 예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남공철 이외에도 박제가나 조수삼, 서형수 등에게서도 확인할

17) 김명호, 『燕行錄의 전통과 『熱河日記』』,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120~121면.

18) 위의 논문, 122~124면.

수 있다. 문집 서문은 대개 중국 인사들의 것과 조선 명가의 서문을 함께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남공철이 중국 인사들로부터 받은 글들만 문집 서문으로 수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금릉집』은 자찬문집으로 남공철 스스로가 그렇게 서문을 편찬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강, 이임송, 진희조는 옹방강 문하의 인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 모두 강남 등 남방 출신으로 명 유민의 후예인 한인(漢人)이었다는 점이다.<sup>19)</sup> 남공철은 자찬 문집 『금릉집』 서문에 이 세 사람의 서문을 싣고는 그 뒤에 스스로 쓴 「자지(自識)」를 덧붙이고 있다. 남공철과 이 세 사람의 인연, 그리고 남공철이 이들이 써준 서문을 소중히 여긴 까닭이 이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조(曹)·이(李)·진(陳) 세 사람 모두 해내(海內)에서 문장으로 이름이 난 이들로 특히 무리에서 뛰어난 자들이다. 내가 연경에 가서 문집 서문을 요구하니 모두 기꺼이 써 주었다. 이상하게도 만인(滿人)이 중국에 들어와 접거한 뒤로 명의 유민과 시나 서찰을 주고받거나 (그들에게) 문집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하면 간혹 무리 지어 비난하면서 그들을 똑같이 비류(匪類)로 대하니 이 어찌 견식이 있는 것이겠는가? 만인은 진실로 비류이지만 한인은 황명 사대부의 후예다. (그들이)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을 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예물과 보배로 외국(淸) 조정에 절하고 꿇어앉는 것은, 원망을 머금고 고통을 참으며 거의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지금 우리나라 온 지역에서 유독 명을 생각하고 명을 존송하는 것을 대의(大義)로 삼고 있지만 (그명 유민의) 후손에 이르러서까지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며 만환을 구별하려 하지도 않으니 어찌 군자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겠는가! 하물며 장강 이남의 인사들 가운데 더욱 명의를 숭상하여 말로 드러내는 것이 모두 옛 왕조의 어진 임금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있으니 천리와 인심이 진실로 여기에 있다. 후에 이 서문을 보는 자는 행여 의심스럽게 보지 말지어다. 평양 동헌에서 짓다.<sup>20)</sup> (괄호는 인용자)

19) 조선 후기 사행에 참여했던 이들이 교류한 중국 인사가 대개 강남(江南) 등 남방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사나 이상적이 교류한 인물들도 대체로 강남 출신이었고 북방 출신은 드물었다. 남공철은 「연경필담서(燕京筆談序)」에서 장강(長江) 남쪽에 명(明) 유민(遺民)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기도 하였다. 만인(滿人)의 한문 해득률이 한인(漢人)에 비해 낮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이 주로 남방의 한족과 지적 교류를 활발히 한 것은 대명의리론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용한 글은 남공철이 조강, 이임송, 진희조의 서문을 차례로 신고 그 뒤에 스스로 써서 부친 「자지(自識)」 전문(全文)이다. 이 글에서 남공철은 대명(大明)의 리를 역설하고 있다. 19세기 초반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명 유민의 후예와 시나 서찰을 주고받거나 그들로부터 문집 서문을 받던 일이 흔했음을 위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청국(淸國)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남공철은 청인(淸人) 가운데 만인(滿人)은 비류이지만 명 유민은 우리와 같은 무리라며 같은 청인이라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만한 차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명 유민이 분을 참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청의 조정에 나아가 조아리며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즉 남공철은 연행을 ‘치욕스럽지만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라 여긴 것이다. 위 글에서도 남공철은 당대에 문명이 높았던 조강 등을 명 유민의 후예이자 명조(明朝)의 문화(文華)를 간직한 이들로 존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학계에서 제대로 조명받은 적이 없지만, 남공철은 기실 여러 글에서 이와 같은 대명(大明)의 리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의 대명(大明)의 리론은, ‘명은 그 문화(文華)가 찬란하여 본받을 만한 데 반해 청이 중국을 점거하면서부터 그러한 찬란한 예악(禮樂)문물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또 명조(明朝)로의 연행과 청조로의 연행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명조로의 연행은, 천자의 뜰에서 의관을 갖추고 종묘와 궁실의 존엄, 의복과 거마의 화려함, 시서와 예악의 찬연함이 구비된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경거공(名卿巨公)과 의관(衣冠)문물(文物) 사이에서 읊양하고 진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영예로운 것으로 여겼다.<sup>21)</sup> 그러나 청조에

20) 「曹、李、陳三人, 皆海內文章名士, 超出輩流者也. 余入燕京, 徵爲文薈弁首之文, 皆樂爲之言. 竊怪夫滿人入據中國以來, 有與明之遺民, 往復詩札, 求爲集序, 或羣聚議之, 一例以匪類待之, 此何見識? 滿人固匪類, 漢人是皇明士大夫之餘裔. 所以應舉仕宦而不能死者, 與我人將皮幣珠玉, 拜踰殊庭, 其含冤忍痛迫不得已之心, 則同耳. 今青邱一域, 獨以思明尊明爲大義, 而至其遺黎子孫, 則鮮相愛好, 不欲區別滿漢, 豈仁人君子惻怛之心乎! 況大江以南人士, 尤尙名義, 發於言者, 皆有苞稊寤嘆之思, 天理人心, 固有在也. 後之覽此序者, 幸勿見疑. 西京東軒漫題.”(南公轍, 「自識」, 『金陵集』)

21) “束帶天子之庭, 以觀其宗廟宮室之尊嚴, 衣服車馬之盛麗, 與夫詩書禮樂之燦然具備, 而進而與名卿鉅公, 揖讓進退於衣冠文物之間, 耳聞其所不聞, 目見其所未見, 則其歸而有光於邦家, 爲榮於鄉里者, 可知矣.”(南公轍, 「送李參議赴燕序」, 『金陵集』卷11) 한편 임형택 교수는 명대(明代)의 연행을 ‘조천(朝天), 청대(清代)의 연행을 ‘연행(燕行)’이라 한 용어의 변화가 곧 명청

들어서 만인이 중국을 점거하며 예약과 문장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고 오랑캐인 만인이 점거한 청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수치롭게 여겼다. 그러면서 그는 명 유민의 후손인 한인(漢人) 가운데는 현호장자(賢豪長者)가 어딘가 숨어 지낼 것이라며 연행을, 그러한 한인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였다.<sup>22)</sup> 요약하자면, 명대의 연행[朝天]은 찬란한 예약 문물을 경험할 수 있는 영예로운 기회로, 청대의 연행은 명 유민의 자손으로서 숨어 지내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긴 것이다.

만한(滿漢)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남공철의 글 곳곳에서 확인된다. 절친한 벗 이현수(李顯綏, 1759~1825)에게 보낸 다음 편지에서도 이 점이 강조되고 있다.

보내오신 편지에는 만족(滿族)과 한족(漢族)을 똑같이 오랑캐라 칭하였는데 매우 고루한 게 아닌가 합니다. 만인은 진실로 비류(匪類)이지만 한인은 명나라 사람의 후예인데 머리를 바싹 깎은 것은 곧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마땅히 그 마음을 슬퍼하고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이 또한 하나의 의(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한인과는 교류해도 되지만 만인과 교류해서는 안 됩니다.<sup>23)</sup>

이 편지에서 남공철은 조선인이 연행 시 만인(滿人)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고 있다. 남공철의 이러한 인식은 그의 연행 전이나 후에 큰 변화 없이 일관되게 표명되고 있다. 1780년 안팎, 그러니까 남공철이 20세 즈음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오윤상(吳允常, 1746~1783)에게 보내는 척독에서 남공철은 최광태(崔光泰, 1744~?), 유만주(俞晩柱, 1755~1788) 등과 함께 오윤상의 종암 별업에서 노닐 계획을 말하면서 그곳에서 유만주로부터

(明清)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한 바 있다.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燕行·燕行錄』, 『한국실학연구』 제20집, 한국실학학회, 2010, 8~10면.

22) “天下之大，豈願無豪傑之士自任以斯道者哉！余聞燕南多悲歌感慨之士，選選隱於市屠之中，人不可得而見之，意其中有賢豪長者相與義激而興起者。”(南公轍, 『送李參議赴燕序』, 『金陵集』卷11)

23) “來諭以滿漢同稱夷虜，恐甚固陋。滿人固匪類，漢人是明人遺裔，剃髮即迫不得已也。當悲其心而愛其人，亦一義也。我人入中國，與漢人交可，與滿人交不可。”(南公轍, 『與李元履』, 『金陵集』卷10)

천계(天啓), 승정(崇禎) 연간 명 유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취가 있을 것이라 하여 명 유민에 관한 이야기에 젊은 시절부터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sup>24)</sup> 또한 연행 후인 1825년에 지은 『연경필담서(燕京筆談序)』에서도 다음과 같이 여전히 명 유민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술을 마시며 고급 인물의 시비와 득실을 논하다가 승정(崇禎) 때의 일에 미치니 모두 슬퍼하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필담하던 것을 다 가져다가 지우며 “그만하지요”

하고는 다시 술을 들어 마시고 잔뜩 취하여 당장 눈물이 흘릴내릴 것만 같았다. 대개 명나라 사대부의 후예들은 비록 고개를 숙이고 벼슬살이를 할지언정 이 세상과 완전히 끊어버리고 지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은 원망을 품고 원통함을 참으며 협박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낸다. 한인(漢人)은 진정 우리 무리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만인(滿人)과 같이 보아 경멸하는 자가 있으니 어찌 인(仁)한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겠는가. 하물며 그 가운데에는 비풍하천(匪風下泉)의 생각을 가지고 연나라 조나라에서 축을 타며 지내는 기남자가 있기도 할 것이니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25)</sup>

이때의 모임에 참석한 중국인은 저유인(褚裕仁)과 오사권(吳思權)이다. 남공철이 1807년 연행 시 북경에서 직접 교류한 저유인과 오사권은 모두 명 유민의 후예인 한인이었다. 그들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지은 이 글에서 남공철은 명 유민의 우울한 심정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풍하천의 생각’[匪風下泉之思]이란, 주(周) 왕실이 쇠하자 그로 인해 약소국이 해를 입을까 근심하며 주나라의 성대한 도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중화의 찬란한 예악문물을 그리워하며 오랑캐가 점거한 중국에서 꺾박을 견디며 몸을 숨기고 우울한 심정을 노래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 하여 명 유민의 후예에 대한 연민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4) “伯翠博涉經史，尤習於啓禎間遺事，致之山水聲之中，聞其議論，亦一趣事。”(南公轍, 『與吳士執』, 『金陵集』卷10)

25) “酒酣論古今人物是非得失，仍以崇禎時事，皆歎唏太息已。取筆談盡削之曰：‘吾欲諱之矣。’又取酒飲劇醉，幾乎泣下。蓋明之士大夫遺裔，雖低首科宦，不能斷棄斯世。然其心含冤忍慟，迫不得已也。漢人固吾黨也。今有與滿人同視而鄙夷之者，豈仁人惻怛之心歟。況其中有匪風下泉之思，燕趙擊筑之奇男子，則其可不愛好之歟。”(南公轍, 『燕京筆談序』, 『穎翁再續藁』卷2)

이 밖에도 명칭 교체기에 조선으로 망명한 석계조(石繼祖)를 기리고 있는 『석거사묘지명(石居士墓誌銘)』에서도 남공철의 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석계조는 임진왜란 당시 명의 병부상서(兵部尙書)로서 조선에 명의 원병을 파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석성(石星, 1538~1599)<sup>26)</sup>의 종손, 즉 석성의 아우 석규(石奎)의 손자다. 석계조는 이자성의 난을 피해 삭발하고 불승(佛僧) 휘정(徽貞)과 조선으로 건너와 강원도 안협(安峽)에 정착한 인물이다. 『석거사묘지명』에서도 남공철의 대명의리론과 관련한 사항 두 가지를 간취할 수 있다. 하나는 석계조의 종조(從祖) 석성(石星) 덕에 명으로부터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입게 되었다는 것,<sup>27)</sup> 다른 하나는 명 멸망 이후 조선이 중화의 예악문물을 계승한 국가였다는 문화적 자존의식이 그것이다. 특히 이자성의 난을 피해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묻는 석계조의 물음에, 동행하던 휘정이 조선을 지목하며 내세운 근거에서 남공철의 문화적 자존의식이 잘 드러난다. 휘정이 “조선은 예로부터 예의로 천하에 이름이 났으니, 변발을 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면서 신침의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의관의 나라에 돌아가 의탁하겠다”라 한 것이 그것이다.<sup>28)</sup> 조선을 ‘예의지국(禮儀之國)’이니 ‘의관지향(衣冠之鄉)’이라 한 것은 또한 작자 남공철의 조선중화주의 내지 문화자존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sup>29)</sup> 이 말들은 휘정의 발언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남공철이 이를 특기한 것을 보면 남공철도 이러한 의식에 동조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공철은 북경에서 그곳에 사신 온 유구인들과도 만난 일이 있으며 그때의 만남을 『기유구인어(記琉球人語)』(『금릉집』 권14)라는 글로 남기고

26) 석성(石星)에 대한 조선 내에서의 평가는 긍정→부정→긍정의 변화를 보였다. 명(明)의 원병(援兵) 파견 당시에는 조선 내에서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조선의 주화론자(主和論者)들이 일(日)과 강화(講和)를 시도할 때 석성이 그에 반대하자 조선에서의 석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후 조선 후기에는 다시 그가 명군(明軍) 파병(派兵)을 이끈 측면이 부각되어 그를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석성에 대한 조선 내 평가에 대해서는 윤행임, 『조선후기 石星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제 70집, 조선시대사학회, 2014 참조.

27) “居士之先, 有曰某山東布政使, 是生星, 事神宗皇帝, 爲兵部尙書. 倭攻朝鮮, 朝鮮遣使請兵, 帝下閣部議, 公獨建言朝鮮藩屏之國, 地小力弱, 不能自存, 救之可. 由是出師之計決, 後遭讒死.” (南公轍, 『石居士墓誌銘』, 『金陵集』 卷17)

28) “朝鮮舊以禮義聞於天下, 與其薙髮左衽而蒙臣妾之辱, 曷若歸托於衣冠之鄉.”(위의 글)

29) 윤행임 또한 석계조에 대한 묘갈명을 지었는데 윤행임의 글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윤행임, 『석거사묘갈명(石處士墓碣銘)』, 『석계고(碩齋稿)』 권19 참조.

있다. 이 글에서 남공철은 유구 사신의 외모, 복제, 유구국에 대한 개관, 공물(貢物)과 풍속, 관제와 형벌, 특산물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곧 백과사전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실학적 각성 시기 연행록에서 두드러지는 고증적 기록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sup>30)</sup> 남공철의 글만의 특징적인 면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유구인어』에서 우리는 단순 사실의 구체적 열거 너머 남공철의 문화적 자부심 내지 주자에 대한 존송 의식을 간취할 수 있다. 조선의 것과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가령 유구국의 관제의 규모가 작은 것이나 서책이 간행되지 않는 점 등의 서술에서는 그와 달리 문화(文華)가 성한 조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sup>31)</sup> 또 유구국 안에 공자묘(孔子廟)가 있으며 관혼상제는 모두 주자가례를 따른다면 유구국이 해외의 예의의 나라라 칭하고 있다.<sup>32)</sup> 여기서 우리는 조선이 명의 예악문물을 잇고 있다는 남공철의 문화적 자부심, 그리고 주자에 대한 존송의식에 기반하여 형성된 유구국에 대한 그의 동질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남공철은 연행 체험 전과 후 변함없이 반청의식을 견지하는가 하면 명 유민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18세기 후반 내지 19세기 초반경에 이르러 여기저기서 대명의리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나 무용론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만친한(反滿親漢)의 정서는 여전히 보편적인 것이었다. 대명의리론은 강고한 명분론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누구도 쉽게 그것을 부정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연행 체험을 한 이들 사이에는 ‘문명의 한인’과 ‘야만의 만인’이라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회의하는 목소리가 적잖이 일었다. 가령 김창업은 『연행일기』에서 청인은 풍채가 좋고 문치(文致)가 적지만 순실(淳實)한 자가 많고 한인은 대개 교활한 이가 많다고 하였으며, 이기지(李器之, 1690~1722)의 『일암연기(一庵燕記)』에서도 비슷한 서술을 찾아볼 수 있다.<sup>33)</sup>

30) 김영진, 「연행록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 『대동한문학』 제34집, 대동한학회, 2011, 79면.

31) “官制有國相一人…(中略)… 只有文官, 無武官, 又無兵, 各衙門, 但有軍守而已. 自古有學問文識之士, 而俗不刊書行世. 如有著書者, 則只隱傳於子孫云云.”(南公轍, 『記琉球人語』, 『金陵集』 卷14)

32) “國中有孔子廟. 冠婚喪祭, 一遵朱文公家禮, 聞其言, 可謂海外禮義之邦也.”(위의 글)

33) 만한(滿漢)에 대한 관념과 체험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는 이철희, 『연행 여정에서 형성된

그러나 남공철은 그의 연행을 전후하여 만한에 대한 차별 의식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의 대명의리에 대한 생각은 상대적으로 저들보다 강고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남공철 대명의리론의 배경

청조에서 유행하던 고동서화 취미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박지원, 박제가, 유득공 등 청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북학과와 젊은 시절 가까이 어울리던 남공철은 의외로 만청(滿淸)에 대해, 그리고 만한 차별 문제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남공철의 만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것일까?

대명의리론의 일단이라 할 ‘만한 차별론’은 당시 남공철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입장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실학적 각성 시기 이후 연행사들조차 대개는 한인들과 교류하고 명 유민들에 대해 연민의식을 가졌으며 만청(滿淸)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거두지 않았다.

남공철이 만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가지게 된 것에는 우선 그의 부친 남유용으로부터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남유용은 제대로 된 명의 역사서가 없음을 한탄하고 직전 이현석(李玄錫, 1647~1703)의 『명사강목(明史綱目)』이 남명(南明)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수정하여 『명서정강(明書正綱)』을 편찬한 바 있다.<sup>34)</sup> 또한 그의 대명의리관과 관련, 1731년 진위사(陳慰使) 서장관으로 연행하는 윤득화(尹得和, 1688-1759)에게 써준 부(賦) 『애장성부(哀長城賦)』 송윤학사덕휘(送尹學士德輝) 봉사연중(奉使燕中)에 덧붙인 그의 서문도 주목된다.

근래 황명(皇明)의 은택이 날로 끊어지고 조선의 유로(遺老)는 모두 세상을 떠나 칭송하는 노래 소리가 날로 쇠하고 그 말하는 것은 하나같이 세상이 크게 변했다는 말뿐이니 진부하고 부화뇌동하여 진작에 사람을 격발시킬 수 없이 도리

‘탈중화’의 두 번째 경로, 『대동문화연구』 제90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참조.

34) 감희 주자의 필법을 사사로이 본받아 책 제목으로 내세웠다는 이유로 남유용은 불서용(不敍用)의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그가 견책을 당한 실제 이유는 홍광(弘光) 이후 임금을 황제로 명기한 점이 청(淸)에 알려질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허태용, 『朝鮮後期中華繼承意識의 展開와 北方古代史認識의 強化』,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53면 참조.

어 비웃음만 살 뿐이다. …(중략)… 지금 저곳에 가면 사방에서 온 타국의 사신들이 반드시 조선 사신에게 예를 묻고는 눈을 비비고 덕휘를 볼 것이니, 덕휘가 강직하게 위의(威儀)를 삼가고 사령(辭令)을 익숙히 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감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18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滄桑]며 그동안 이어지던 대명의리론을 회의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을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유용은 여전히 조선이 중화의 예악문물을 계승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윤득화가 북경에 가 당당한 태도로 임한다면 타국의 사신들이 조선 사신에게 예를 묻고 우러러볼 것이라 한 데서 그러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글에서 남유용은 청의 존재나 문물을 인정하려는 태도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성하지권(城下之權)’, ‘노정(虜庭)’, ‘호황후(胡皇后)’ 등의 용어를 써서<sup>36)</sup> 애써 청을 배척하고 있기도 하다.<sup>37)</sup> 남유용의 이러한 대명의리론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공철에게서도 확인된다. 남공철 역시 청의 조정에 나아가는 것을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으며 명 유민과 조선인 모두 분을 참고 부득이하게 청에서 살거나 청의 조정에 나아간다고 하였다.<sup>38)</sup>

남공철의 대명의리론은 부친 남유용에게서뿐만 아니라 이덕무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거나 강고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남공철은 16세 되던 1775년경부터 시작하여 이덕무가 죽게 되는 179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덕무와 교류하였다. 남공철은 젊은 시절 연암 그룹과 활발히 교류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덕무와 특히 친밀하였다. 이덕무를 통해 원경도 문학을 수용했듯이,<sup>39)</sup> 남공철은 이덕무와 어울리며 여러 면에서 그의 영향을 받았다. 이덕

35) “挽近以來，皇明之澤日益斬，東土之遺老盡，諷吟之聲日益衰，而其言語一有及於滄桑之故，則爲陳腐爲雷同，既不足激厲人，顧反見嗤…(中略)…今之之彼，他國使自四方來者，其必徵禮於三韓之价，而拭目於德輝。德輝侃然愼其威儀，嫻其辭令，必有以服其心也。”(南有容, 『哀長城賦送尹學士德輝奉使燕中』, 并序, 『雷淵集』 卷1)

36) “自我邦用城下之權也，歲一修聘，又重以咨請吊賀之使，而皮幣走虜庭者，冠蓋相屬，及茲殆百年矣…(中略)…茲者德輝之使也，實唁胡皇后之喪也。”(밑줄은 인용자)(위의 글)

37) 오주학, 『雷淵 南有容 散文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7면.

38) 주 20) 참조.

39) 안순태, 『南公轍의 袁宏道 문학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제120집, 한국어문학회, 2013, 195~196면.

무는 1778년에 진주사(陳奏使) 심염조(沈念祖)의 수행원으로 연행하고 돌아와 720여 명의 명 유민들에 대한 기록을 고증하여 명 유민 인명사전이라 할 수 있는 『뇌뢰낙락서(磊磊落落書)』를 저술하기도 하였다.<sup>40)</sup>

이덕무는 고염무(顧炎武)·모기령(毛奇齡)·주이준(朱彝尊) 등 청대 고증학자들에 대해 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그들의 고증적 학문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명의리 또한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았다. 즉 대명의리를 지키고 청조에서 벼슬하지 않은 고염무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 모기령에 대해서는 고증의 치밀함과 박학적 면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가 대명의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청조에 벼슬한 것이나 그의 반주자적 성향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sup>41)</sup> 대명의리론과 관련한 이덕무의 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엽기(莛葉記)』의 다음 대목이다.

청이 이미 외국(外國)으로서 중국에 들어갔으므로 명 유민들 가운데는 간혹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 그러자 강희제는 그들의 어지러운 의논이 인심을 선동하거나 또는 (그들이) 글을 저술하여 (만청을) 조롱할까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박학홍사과(博學鴻詞科)를 설치하고 천하의 숙유(宿儒)들을 억지로 끌어모아 50인을 선발, 모두 한림원검토(翰林院檢討)에 배하여 비방을 막았고, 따라서 천하를 다스려 나갈 방법을 얻을 수 있었다. …(중략)… 오직 고염무(顧炎武)만은 죽기로써 기약하고 끝내 천거에 응하지 않아 홀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위희(魏禧)는 병을 핑계로 천거를 사양하였는데 군현(郡縣)의 독촉에 못 이겨서 하는 수 없이 길을 나섰다. 병이 위중해져 집에 돌아와 죽었으니, 고염무에 버금간다. 그 나머지는 모두 더러움에 몰들어 절개를 잃었는데, 가령 모기령 같은 자는 부끄러움이라고는 전혀 없이 행여 미치지 못할 듯이 하였으니 더러워서 꾸짖을 가치조차 없다. …(중략)… 나는 강희제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은 모두 명나라 때 나서 자란 이들이므로 다 (청조의) 신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박학홍사과(博學鴻詞科)뿐만 아니라 비록 다른 과에도 응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옹정제나 건륭제 때 사람들에게 이르러서는 모두 명이 망

40) 성해응(成海應)은 『뇌뢰낙락서(磊磊落落書)』의 단점을 보완하여 『황명유민전(皇明遺民傳)』을 짓기도 하였다. 이덕무의 『뇌뢰낙락서』와 성해응의 『황명유민전』에 대해서는 사경화, 『조선 후기 明 遺民에 대한 기록 양상』, 『한문고전연구』 제34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7, 240~241면 참조.

41) 권정원, 『이덕무의 청대고증학 수용』, 『한국한문학연구』 제58집, 한국한문학회, 2015, 295~303면 참조.

한 후 백 년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므로 가혹하게 책망해서는 안 된다.<sup>42)</sup>(괄호는 인용자)

명을 멸하고 중국을 점거하여 개국한 청은 명 유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박학홍사과(博學鴻詞科)’를 설치, 50인을 선발하여 벼슬을 주었다. 고염무는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반면 모기령은 청조에 벼슬을 하였는데, 이덕무는 이와 관련, 고염무와 모기령에 대해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위 인용문 마지막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청조에서 벼슬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명이 멸망한 이후 태어나 청조에 벼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함을 인정해 가혹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남공철이 당시 청조에서 과거 시험을 보아 벼슬하는 한인(漢人)들이 ‘부득이해서’ 그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동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현실을 감안하는 선에서 대명의리론을 표방하는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덕무나 남공철은 그 점에서 입장을 같이했다고 할 수 있다.

남공철이 어려서부터 친애하여 교유한 이덕무는 실로 여러 측면에서 남공철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덕무가 죽고 나서 남공철은 이덕무의 문집 서문을 써주기도 했다. 남공철의 대명의리론이나 만한 차별론 역시 위와 같이 이덕무와 상통하는 점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이 최소한의 대명의리를 견지해야 한다는 이덕무의 입장, 명 유민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이덕무의 관심 또한 일정하게 남공철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42) “淸既以外國入中國，而明之遺民，或有不心服者，康熙慮其橫議煽動人心，又或著書譏嘲，設博學鴻詞科，勒聚天下之宿儒，取五十人，而皆拜翰林院檢討以放之，能得駕馭之術。…(中略)…惟顧炎武以死自期，終不與薦，獨爲完人。魏禧以病辭薦，而爲郡縣督迫就道，病篤而歸卒，抑亦炎武之次也。餘皆污染失身，而如毛奇齡之類，全沒羞耻，如恐不及，陋不足誅。…(中略)…余以爲康熙時制科人，皆生長於明時，故俱是不臣，不惟鴻博，雖他科，不試可也。至若雍正乾隆時人，皆生於明亡以後百年之中，不可苛責也。”(李德懋, 『盡業記』, 『靑莊館全書』 卷56)

#### IV. 19세기 초반 연행 세태와 그에 대한 반성

남공철은 자신이 감상한 서화에 대해 빠짐없이 그와 관련한 정보나 감상을 기록하여 116편이나 되는 서화발미를 남기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그가 연행할 때 견문한 것 또한 세세히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3)</sup> 또 그는 중국에 갈 때 자신의 시문을 간추려 가서 청조의 저명한 문인들(조강, 이임송, 진회조)에게 보여주고 서문을 받아왔다. 그렇게 받아들인 서문을 남공철은 모두 자찬문집 서문으로 수록한다. 이는 당시 풍조이기도 했다.

한편 1807년 순조는 동지정사로 떠나는 남공철과 부사 임한호, 서장관 김도응을 소견하는 자리에서 중국 서책 가운데 구할 만한 것이 있으면 구해 오라는 명을 내린다. 이에 남공철은 정조18년(1794)에 이루어진 중국 서책 수입 금지책을 거론하며<sup>44)</sup> 경사(經史) 가운데 볼 만한 책을 구해 오겠다고 하였다.<sup>45)</sup> 1807년 연행 당시 중국에서 어떤 책을 얼마나 사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순조의 하명이 있었던 데다가 정사(正使)인 남공철이 서적 수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까지 하였으니 전에 비해 적지 않은 물량의 서책을 수입해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남공철은 그 부친 남유용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청의 조정애 나아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청인 중 만인을 비류라 해서 멸시한 반면 한인은 명 유민의 후예라 하여 연민과 동정심을 보낸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43) 남공철의 연행록 『일기(日記)』가 현재 도쿄 이시카와 다케요시[石川武美] 기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래 전(全) 3책이었으나 제1책이 일실(逸失)되어 제2책과 제3책 두 책만 전한다. 일기식(日記式)으로 적은 남공철의 연행록 『일기』가 본래 3책이라면 이는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어서 대체로 세세한 사항까지 기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마 스스무 교수는 조선 후기 문인들의 한송 논쟁에 대해 논하면서 남공철이 1807년 연행 과정에서 한학과 송학의 대립에 대한 모종의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남공철 연행록 『일기』가 도쿄의 お茶の水 도서관(現 이시카와 다케요시 도서관)에 전한다는 사실을 처음 언급하였다. 후마 스스무, 『연행사와 통신사』, 하정식 외 옮김, 2008, 145면 참조.

44) 정조는 1794년 동지정사 홍양호 등 사신들을 소견하고 당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책들이 모두 폐관소품류라며 절대로 중국에서 서책을 사오지 말라 명하였다.(『정조실록』 정조18년 갑인(甲寅), 10월 29일조) 정조는 1786년, 1787년, 1791년, 1793년, 1794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서적 수입 금지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러한 서적 수입 금지령은, 실효성은 적었으나 국왕의 문체 정책을 천명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혜선, 『정조의 문체반정과 京華文化』, 『한국실학연구』 제23집, 한국실학학회, 2012, 96~97면 참조.

45) 『순조실록』 7년 정묘(丁卯) 10월 29일조.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연행과 관련한 이러한 풍조, 즉 견문한 것을 매우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 청인으로부터 서문을 받아오거나 그들과 서찰을 주고받는 것, 중국 서책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 대명의리에 얽매어 청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남공철의 연행이 있고 나서 15년 뒤인 1822년(순조22), 김노겸(金魯謙, 1781~1853)은 죽질 김명희(金命喜, 1788~1857, 추사의 아우)<sup>46)</sup>에게 주는 서문 『송종질성원수가대인입연병서(送從姪性原隨家大人入燕並序)』<sup>47)</sup>에서 당시 연행 과정에서의 풍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당시 연행 세대와 그에 대한 김노겸의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공철의 대명의리론이 지니는 자기모순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만하다. 이 글에서 김노겸은 네 가지 측면에서 당시 연행 풍속을 문제 삼고 조카에게 당부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첫째는 연행의 기록 문제, 둘째는 중국 인사와의 교류 문제, 셋째는 중국 서적의 구입 문제, 넷째는 대명의리 관련 문제다.

먼저 김노겸은 연행 기록과 관련, 잦은 연행과 그에 대한 기록이 축적되어 가던 19세기 초반의 대부분의 연행록이 견문한 것을 지나치게 세세히 기록하던 풍조를 비판하고 있다. 길가의 갱점(炕店)이나 성시(城市)의 누대, 궁궐 규모 등속을 과도하게 자세히 묘사하여 산 하나, 물 하나를 기록하는 데만도 걸핏하면 몇 장을 소비한다고 하였다. 반면 당시 풍조와 대비되게 민중중(閔鼎重, 1628~1692)의 연행 기록은 서술이 간략하여 대체(大體)를 얻었다며 칭상하고 있다.<sup>48)</sup>

46) 김명희(金命喜)의 부친 김노경(金魯敬)과 김노겸(金魯謙)은 8촌 간이다.

47) 金魯謙, 『性庵集』 卷2. 이 자료는 유봉학 교수가 조선후기 대청의식(對淸意識)의 추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언급된 바 있다. 유봉학, 『18·9세기 大明義理論과 對淸意識의 推移』, 『한신 논문집』 제5집, 한신대학교, 1988, 264~265면 참조. 본고에서는 김노겸의 대청의식뿐만 아니라 연행 세대 전반에 대한 김노겸의 견해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1822년 당시 김명희는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로 연행하는 부친 김노경(金魯敬)을 따라 자제군관으로 북경에 다녀왔다.

48) “余從知友間, 或得燕行記讀之, 則沿路炕店城市樓臺宮殿之屬, 務欲極意描寫, 一山一水之記, 動費數疊, 甚至於雉堞之廣長, 牌樓之間架, 無不一一收錄, 必欲纖悉而後已, 心常笑之. 近日偶得閔老峯入燕時日記觀之, 則自辭陞至復命, 半年之間, 爲日凡二百有幾, 而紀載不過十餘紙. 過遼野, 則曰甚闊曠, 入朝陽則曰頗壯麗, 可謂得遊觀之大體, 而此老襟懷之廣大, 亦可以想像矣. 是知向之務. 欲纖悉者.”(金魯謙, 『送從姪性原隨家大人入燕並序』, 『性庵集』 卷2)

중국 인사와의 교류 문제와 관련해 김노겸은, 예전에는 중국에 가서 비가감개지사(悲歌感慨之士)를 만나는 일이 있었으며 그것은 ‘기이한 만남’ [千古奇遇]이나 ‘통쾌한 일’[快事]이 될 수 있었지만 김노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드물다고 하였다. 즉 사행원들이 만나는 중국 인사는 대체로 강남의 미관말직 벼슬아치에 불과하며 그들로부터 혹 편지라도 얻으면 남들에게 자랑하며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급기야 그것은 마치 우물 속 개구리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기도 하였다.<sup>49)</sup>

중국 서적 구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노겸은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다. 즉 김노겸 당대에는 중국에 귀한 책이 드물다고 하고 조선인들이 중국에서 총서류와 패관잡기류를 잔뜩 사오는 것은 시골 선비가 서울에 와서 꼭 흔하디 흔단 『십구사략(十九史略)』 등을 사들고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였다.<sup>50)</sup>

마지막으로 김노겸이 지적한 것은 청(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역사 인식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해당 부분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황명(皇明)에 대해 재조지은이 있기 때문에 갑신(甲申) 이후로 상도(上都)에 가는 자들은 모두 비풍하천(匪風下泉)의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도록 200년이 지나 그 의리는 또한 땅을 깨끗이 쓸어낸 듯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그러나 공자가 주실(周室)을 존중하고 맹자가 왕도(王道)를 행한 것 또한 각각 ‘때에 맞는 의’[時義]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은 궁핍하여 재물이 소진되고 자립할 수 없게 된 지 오래되었다. 만일 동남쪽에 변고가 발생하고 천하에 일이 많아지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세로 어찌 하루라도 버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춘추의리도 한쪽으로는 짊어지고

49) “遊上國者，若得當世之大人君子，與之上下論議，又或遇悲歌感慨之士，握手嘘唏天下事，則誠千古奇遇也，快事也，而近日則不然。其所與言者，不過江南遊宦之末品而已。或得其一言一札，則視若奇貨，歸而自詫於人曰：‘此中國某某人之文，若筆而今方，現爲某官。’又或蒐得數行序跋，自弁其草藁，輒自眩耀於世曰：‘此某尚書之文，’而推與如此題品如此竊竊然，自以爲天下文章。是何異於井蛙之自大，而得不爲大方之笑乎。”(위의 글)

50) “我東書籍，多從燕市買來，而近日則非但知書者稀，貴書者亦稀。其所買來者，不過如干叢書而已。不然則裨官雜記之零零碎碎者也。是何異於窮鄉村秀初入京師，必買十九史畧與山陽新話耶。是誠可羞也已。購書者，不可以不知此義。”(위의 글)

가야겠지만 연경에 일이 없으면 뒤에야 우리나라 또한 거의 편안할 것이다. 세상에서 춘추를 담론하는 자들은 또한 이 뜻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sup>51)</sup>

김노겸은 명의 재조지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앞서 당시 조선이 처한 정세를 간파하고 우선 일본이나 중국에 큰 문제가 없어야 조선도 편안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들고 있는 근거가 바로 백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이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은 무용한 대명의리 명분론은 체쳐두고 우선은 궁핍한 백성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 정세를 잘 살펴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sup>52)</sup>

이상과 같이 김노겸은 1812년, 연행하는 죽질 김명희에게 연행 과정에서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 충고하는 글을 남겼다. 연행 기록의 태도, 중국 인사와의 교류, 서적 구입 문제, 청과 관련한 역사인식 문제 등에 관해서였다. 남공철이 불과 15년 전 연행하고 나서 보인 대명의리론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김노겸의 발언, 즉 대명의리도 한편으로는 짊어지고 가야겠지만 그에 앞서 민생(民生)의 자립에 힘을 쏟고 국제 정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공자나 맹자의 ‘시의(時義)’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명분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노겸은 이렇게 19세기 초반에 당면한 문제는 관념화된 대명의리에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국내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한

51) “我國之於皇明，有再造之恩，故甲申後，遊上都者，皆有匪風下泉之思，而于今二百年。此箇義理，亦掃地無餘矣。寧不悲哉。然孔子之尊周室，孟子之行王道，亦各有時義存焉。目下本國之民窮財竭，不能自立久矣。假使東南有變，天下多事，則以本國今日模樣，其安能一日支乎？然則春秋義理，且擔一邊，燕京無事，然後吾國亦庶乎其安矣。世之談春秋者，亦不可以不知此義。”(위의 글)

52) 명분보다 백성들의 생계와 관련하여 이익이 된다면 오랑캐의 것이라도 취해야 한다는 실리적 태도는 연암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연암은 『일신수필(駙汎隨筆)』에서 『춘추(春秋)』의 본의가 중화를 떠받들고 오랑캐를 배척함에 있을지언정 오랑캐가 중국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들의 숭상할 만한 것들까지 배척하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백성의 이익’을 두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聖人之作春秋，固爲尊華而攘夷。然未聞憤夷狄之猖夏，並與中華可尊之實而攘之也。故今之人誠欲攘夷也，莫如盡學中華之遺法，先變我俗之椎魯，自耕蠶陶冶，以至通工惠商，莫不學焉。人十己百，先利吾民，使吾民制挺，而足以撻彼之堅甲利兵，然後謂中國無可觀可也。”(朴趾源, 『駙汎隨筆』, 『熱河日記』)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는 대명의리론을 완전히 폐기하자는 주장은 아니었지만 대명의리보다 중요한 현안이 있음을 부각시켜 사실상 대명의리의 무용론을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시의(時義)’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당시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기 어려울 만큼 강경한 발언이며 자못 과격한 것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염려했던지 김노겸은 글의 끝부분에 이 글을 남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이고 있다.<sup>53)</sup>

김노겸의 견해를 돌아보면 연행과 관련한 남공철의 태도는 반성되어야 할 것들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남공철 연행록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남공철이 연행 과정을 소상히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중국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태도, 중국 서적을 다량 구입하려는 의도, 대명의리론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서 만환을 차별하고 한인과만 교류하려 한 것 등은 최소한 김노겸에게는 반성의 대상이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대명의리에 대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남공철이 ‘만환 차별’을 통해 대명의리를 견지하려던 것과 달리 김노겸은 대명의리보다 중요한 현안들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남공철의 대명의리론은 이전 시기 강경한 북벌론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고 소극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대명의리론의 약화는 이전까지 절대 시하던 주자의 학설을 상대화시킨 한송절충론이나 대명의리론과 모순되는 북학의 대두로 인해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였다. 남공철의 연행 이후 조선 지식인들 상당수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동시에 대명의리는 더 이상 강고하게 주장될 수 없었다.

연행하는 벗들에게 써준 여러 편의 송서(送序)에서 남공철은 만환 차별론 등 소극적으로나마 대명의리에 집착하고 있었던 데 반해 남공철과 정치적·문화적 기반을 같이하는 서영보(徐榮輔)나 김조순(金祖淳)이 1813년 사은정사로 연행하는 이상황(李相曠)을 전송하며 쓴 글들을 보면 남공철의 연행을 전후한 시기에 경화세족들 사이에서 대명의리가 더 이상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다른 현안들에 대한 관심에 가려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서영보는 연경을 두고 형산(荊山)이나 기북(冀北)과 같이 만물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라 하고, 노쇠한 자신을 대신하여 연행

53) “右四條所論信筆及之語，頗垂激，不可以示諸人。然其實，則不無微意存焉。”(金魯謙, 앞의 글)

하는 이상황을 화씨(和氏)와 백락(伯樂)에 빗대는 한편 청의 선진 문물 수입을 옥과 말에 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민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수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sup>54)</sup> 김조순 또한 청의 국운이 쇠퇴하고 그것이 조선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며 주의 깊게 정세를 살펴 그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sup>55)</sup> 이처럼 19세기 초반 들어 경화세족들 사이에서도 청을 대함에 대명의리보다 시급한 현안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대명의리의 완전한 폐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은 민생의 피폐와 급박한 국제 정세와 같은 국내외의 현실적인 문제로 기울어 있었다. 이에 이르러 관념화된 대명의리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거나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소중화의식 내지 문화적 자존의식은 명 멸망 이후 특수하게 전개된 조선의 관념적 대명의리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이후 북학으로 인해 문화적 자존의식은 갈수록 낮아지게 되었다. 그동안 조선만이 찬란한 예악문물의 유일한 계승자라 자처하였는데 오랑캐로 업신여기던 청 문물의 선진성을 목도하면서 조선의 대명의리론은 모순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때 박지원, 유득공, 박제가 등과 같은 북학파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고동서화 취미에 열성적이었던 남공철이 청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논의는

54) “求玉者必之于荆山, 求馬者必之于冀北, 然自往者未必能獲, 而必使卞和伯樂往焉何哉, 知不知不同也. …(中略)… 今夫燕都, 天下之所會同也, 是其於百爲萬物也, 猶玉之於荆山, 馬之於冀北. 國家與中國通幾年矣, 朝正慶賀請謝之使適彼者幾人矣, 而未嘗聞盈尺之珍, 千里之乘至焉, 豈荆與冀之無玉與馬歟, 抑有之而不知求歟, 余之爲是說久矣. …(中略)… 苟得以利用, 以厚民生, 斯公之所屑爲已.”(徐榮輔, 『送李周玉赴燕序』, 『竹石館遺集』 冊2)

55) “夫以天下之廣且大, 其敝也如此, 而能無事者, 未之有也. 彼之敝, 我之憂也. 無事則曷以備豫, 有事則曷以應變, 大夫之責, 不其棘於善規乎!”(金祖淳, 『送桐漁李判書赴燕序』, 『楓臯集』 卷15) 이에 대해서는 안대회, 『조선 후기 燕行을 보는 세 가지 시선』, 『한국실학연구』 제19집, 한국실학학회, 2010, 113면 참조.

고사하고 오히려 만한차별론을 내세워 애써 만청(滿淸)을 부정하려 했다는 사실은 의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대명의리론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가문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에 놓여 있었다. 부친 남유용이 남명의 역사를 정통으로 하여 명사를 다시 써서 『명서정강(明書正剛)』을 편찬한 것, 남유용이 강고하게 대명의리론을 내세웠던 점을 생각하면 그의 만한 차별이 난데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당시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은 북학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대명의리론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점, 남공철이 친밀하게 교유한 이덕무 또한 기본적으로 대명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으며 특히 명 유민에 대해 관심이 컸던 점도 남공철의 대명의리론과 만한 차별론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명의리론이 18세기 후반 내지 19세기 초반에 들어 더욱 약화될 수 없었던 것은 북학 열풍과 한학(漢學)의 득세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었다.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과 만족(滿族)이 건국한 청을 배척해야 한다는 대명의리론은 서로 모순이 심화되어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주(程朱)의 학설을 절대시하는 송학에 대해 한학이 득세해가는 과정에서 대명의리론이 힘을 잃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공철은 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청의 선진 문물 도입을 애써 외면하였고 한송절충론을 표방하여 한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만한 차별론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대명의리론 표방을 포기하지 않았다.

조선후기 대명의리론의 추이로 볼 때 남공철의 대명의리론은 19세기 초반 대명의리론의 종장(終場)에서의 지식인의 심화된 자기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명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과 청의 문화와 문물을 끝내 배척하지 못하는 실천의 괴리는 비단 남공철만의 자기모순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자기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대명의리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金魯謙, 『性庵集』, 규장각 소장본.  
金祖淳, 『楓臯集』, 한국문집총간 289.  
南公轍, 『金陵集』, 한국문집총간 272.  
南有容, 『雷淵集』, 한국문집총간 217.  
朴齊家, 『貞蕤閣集』, 한국문집총간 261.  
朴趾源, 『熱河日記』,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1997.  
徐榮輔, 『竹石館遺集』, 한국문집총간 269.  
徐滢修, 『明臯全集』, 한국문집총간 261.  
申 緯, 『警修堂全藁』, 한국문집총간 291.  
柳得恭, 『燕臺再遊錄』,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60, 동국대 출판부, 2001.  
尹行恁, 『碩齋稿』, 한국문집총간 287.  
趙秀三, 『秋齋集』, 한국문집총간 271.  
洪錫謨, 『游燕藁』, 임기중 편, 『연행록속집』 129, 상서원, 2008.  
『正祖實錄』  
『純祖實錄』

### 2. 단행본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김명호,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안순태, 『남공철 산문 연구』, 월인, 2015.  
후마 스스무, 하정식 외 역,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 3. 논문

- 강혜선, 『정조의 문체반정과 京華文化』, 『한국실학연구』 제23집, 한국실학학회, 2012, 89~121면.  
권정원, 『이덕무의 청대고증학 수용』, 『한국한문학연구』 제58집, 한국한문학회, 2015, 281~316면.  
김성진, 『조선후기 문인들의 생활상과 소품체 산문』, 김도련 편,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587~606면.  
김영진, 『연행록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 『대동한문학』 제34집,

- 대동한문학회, 2011, 65~91면.
- 사경화, 『조선 후기 明 遺民에 대한 기록 양상』, 『한문고전연구』 제34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7, 231~263면.
- 안대회, 『조선 후기 燕行을 보는 세 가지 시선』, 『한국실학연구』 제19집, 한국실학학회, 2010, 87~121면.
- 안순태, 『南公轍의 袁宏道 문학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제120집, 한국어문학회, 2013, 177~203면.
- 오주학, 『雷淵 南有容 散文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유봉학, 『18·9세기 大明義理論과 對淸意識의 推移』, 『한신논문집』 제5집, 한신대학교, 1988, 249~273면.
- 윤혜민, 『조선후기 石星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제70집, 조선시대사학회, 2014, 207~237면.
- 이철희, 『연행 여정에서 형성된 ‘탈중화’의 두 번째 경로』, 『대동문화연구』 제9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7~32면.
-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燕行·燕行錄』, 『한국실학연구』 제20집, 한국실학학회, 2010, 7~28면.
- 정후수, 『秋史 金正喜의 北京 內 交遊 場所』, 『東洋古典研究』 제23집, 동양고전학회, 2005, 201~232면.
- 허태용, 『朝鮮後期 中華繼承意識의 展開와 北方古代史認識의 強化』,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Yeonhaeng 燕行 and the viewpoint of the Qing of Nam Gongcheol 南公轍

An, Soon-T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xperience of *Nam Gongcheol* (1760~1840) when he visited the Qing Dynasty in 1807 and the perception of the Qing Dynasty of him. In the course of 1807, *Nam Gongcheol* received his preface to prominent figures of the Qing such as *Cao Jiang* 曹江, *Li Linsong* 李林松, and *Chen Xizui* 陳希祖, and was included in his collection of works published in 1815 by himself. Among them, especially, *Cao Jiang* was already known among the intellectuals of Joseon, so *Nam Gongcheol* visited *Cao Jiang* without hesitation. In Beijing, too, *Nam Gongcheol* met directly with the *Zhu Yuren* 豬裕仁 and *Wu Siquan* 吳思權. He also left a record of the meeting with Ryukyu 琉球 ambassadors.

Because all of the preface was wrote by descendant of the people of Ming 明, *Nam Gongcheol* set them in his anthology as a preface. In addition, *Zhu Yuren* 豬裕仁 and *Wu Siquan* 吳思權 were all descendants of the Ming 明, *Nam Gongcheol* felt strong sympathy for them. Such consciousness of conscience was expressed by the discrimination against Man people 滿人 and Han people 漢人.

It is surprising to note that *Nam Gongcheol*, who was once enthusiastic with the school to learn the Qing Dynasty such as Park Jiwon, Yu Deukgong, and Park Jaega, however, he basically was lied in the background of the family and the political background that can not throw up the Daemyung loyalty 大明義理論. It was perhaps natural that his father, *Nam Yiyong*, had written a history of Ming 明, and that emphasized the faithful to Daemyung loyalty. In addition, most of the Joseon intellectuals at that time, in spite of the craze to learn the civilization of Qing Dynasty, could not deny the Daemyung loyalty actively. *Yi Dukmu* who closely cooperated with *Nam Gongcheol*, also had a great interest in the descendant of Ming people.

As well known, *Nam Gongbeol* was a eclectic for Han Methodology漢學 and Song Methodology宋學. However, accepting the merits of Han Methodology漢學 is to relativize Song Methodology宋學, which is contradictive to the Daemyung loyalty, which had been weakened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why *Nam Gongbeol*, who had this self-contradiction, did not give up the Daemyung loyalty until the end was the courtesy to Ming people and the compassion for them through discrimination.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Daemyung loyalty can be said to show the deep self-contradiction of the intellectuals who could stand up at the final stage of Daemyung loyalty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y acknowledged the merits of Han Methodology漢漢, which was to relativize the orthodox Neo-Confucianism. However, as the Daemyung loyalty was based on the orthodox Neo-Confucianism, they did not give up the that by expressing sympathy for the descendant of the people of Ming明. Because of his family background and political status, it seems that *Nam Gongbeol* was forced to ignore the advanced artifacts of the Qing Dynasty while experiencing the journey to the Qing Dynasty.

keywords: *Nam Gongbeol*南公轍, *Cao Jiang*曹江, Daemyung loyalty大明義理論, *Kim Nokyun*金魯謙, *Yeonhang*燕行, discrimination against Man people and Han people滿漢差別.

접수일자: 2017. 9. 30. 심사기간: 2017. 10. 1.~2017. 11. 10. 게재결정: 2017. 11. 10.
---